

# 재밋고 특별한 법회로 다가간다!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지도자모임 발족, 연합 불교학교·포교은행 등 운영 예정

“학교 앞으로 과자를 싸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며 법회가자고 해도 안와요. 수첩을 선물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장난감도 빵도 다 싫대요. 부처님 말씀 들려주고 싶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찾아오기 쉬운 도시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어린이법회가 잘 될까? 아니다.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지도법사, 지도교사) 모임을 위한 준비 모임. 이날 준비모임 참석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생생하게 토론했다. 그간 수도권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었던, 현장에서 통해 공유하는 생각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200명 어린이가 10명으로**

서울 기원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법연 스님은 “200명씩이던 법회 참석자가 10명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 청량사도 1995년 이후 갑자기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300명씩 찾아오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지도법사 성범 스님은 “예전에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원에 가느라 못 온다”며 “IMF이후 인원은 줄었지만 어린이법회 운영과 유지 위해 들어가야 하는 기본투자비는 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느라 법회운영 방식을 바꾼 사찰도 많았다. 서울 향촌선원 은 1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8월에만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족한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은 이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를 운영중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12월 1일 한 자리에 모였다.

각 사찰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간 (사동원이 부산지역에 구성된 부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은 있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경험을 공유할 조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처음으로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 캠퍼스 운영을 시작한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회장 송묵)가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을 발족한 것이다.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전모도 완전히 파악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법회를 운영 중인 사찰은 서울 지역 48곳, 경기도 26곳, 인천 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은 향후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결의하고, 법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중 특히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연합 불교학교 개최’ 방안이었다.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겨울·여름 불교학교를 연중 1회 지역별로 연합해

개최함으로써, 사찰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불교적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사 교육국장 석연 스님은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이 드러내놓고 자신의 종교를 말하는 반면 불자들이들은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자신의 종교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연합 불교학교를 개최하면 불교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개별사찰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 위한 특별법회 필요해요**

법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제도 운영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력 활용방안으로 수영 스님(서울 구룡사, 정혜선원 지도법사)이 자체 운영하는 ‘선아회(善兒會)’를 소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선아회는 수영 스님이 담당했던 어린이법회 출신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해도 꾸준히 지도법사 스님과 연락을 교환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어린이법회 보조교사로, 대학교 이후에

는 지도교사로 투입돼 활동하는 모임. 수영 스님이 이같은 활용방안을 소개하자 타사찰 지도자들 역시 인력양성 제도를 운영하는 비결을 묻기도 했다.

한성포교원 원장 법봉 스님은 “이웃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일학교를 18부까지 운영해 운영비결을 알아보니 아이들이 20명씩 나눠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각 사찰 신도들도 투입해 전부 지도교사로 나서서 유치원까지 단계별로 아이들을 나눈 소그룹 운영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법회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법회를 이끌어갈지 등을 토론했다.

모임을 주관한 송묵 스님은 “예전에 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장애인인데 어떤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종교유치원에 연락하게 됐다’며 호소해 장애아동을 받았는데, 수준을 고려해 반을 빼치고, 그 아동을 위한 보조교사를 투입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현재 불교계는 장애아동을 위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립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첫 모임을 가진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12월 10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앞으로 월 1회씩 지도자 모임을 갖는 한편 각 법회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하는 ‘포교은행’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자 모임 지도법사로는 석연 스님과 법봉 스님이 추대됐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renny@buddhapia.com



### 서울 원교사 청년회 ‘화소회’

서울 중로구 명륜동에 지난 2000년 개원한 원교사(주지 계환)에는 젊은 불자들이 토틀 뭉쳐있다. 개원한지 얼마 안 된 사찰이건만 청년회 참석인원은 30여명이 넘는다. 재직 회원은 56명에 이른다.

이름도 연합미소에서 한자씩 따와 ‘화소회’라고 지었다. 연합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린 가섭존자처럼 화소회 법우들도 부처님의 큰 뜻을 기려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겠다는 발원

는 정기행사 외에도 불링, 당구, 탁구 등을 좋아하는 법우들끼리 모여 소모임 활동을 벌인다.

특별법회도 다채롭다. 성지순례와 철야정진 같은 법회 외에도 법우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법회는 바로 ‘야단법석’이다. 매년 10월 실시하는 ‘야단법석’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화소회만의 이색법회다. 야외에서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특목 특는 친목프로그램을 1박2일 동안 진행해 법우



서울 원교사 청년회 ‘화소회’는 정기법회를 한달에 한번씩만 봉행하는 대신 다양한 문화활동과 소모임 자원봉사로 화합에 나선다.

##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살죠”

### 문화활동·자원봉사로 법우에 나눠... ‘야단법석’ 최고 인기

을 담은 이름이다. 화소회 3회회장인 이경준씨는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법우들의 모임이라는 자화자찬의 뜻도 있다”며 활짝 웃는다.

화소회는 2001년 10월 젊은 신도 8명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이후 언제나 교리공부부 통한 신심증대에 중점을 두고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불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회 후 곧바로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리공부’를 통해 재미를 배가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불심을 튼튼히 놓을 수 있는 취미와 교리공부와 신행활동을 병행한다.

한창 사회활동이 바쁜 청년층을 위해 정기법회는 매달 첫째주 한번만 봉행한다. 대신, 3째주 주말에는 단체공연관람 등의 문화활동과 병행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회원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모임답게 내부 소모임 활동도 많다. 화소회 회원 중에는 매달 두 번

들 인기와 끌고 있다.

돈독한 법우애와 함께 재능이 뛰어난 법우들이 많은 것도 화소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특히 가야금, 병풍춤, 대금,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법우들이 화소회에 많다. 이들이 중심이 돼 사찰 봉축행사에서 공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부대나 실버타운에 위문공연을 하고 있다.

이같은 위문활동 외에도 매월 정기법회에 참석한 법우들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 장학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인근 중·고등학교에 장학금 추천을 의뢰해 한 학기에 두번씩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회화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화소회가 토틀 뭉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지스님의 끊임없는 관심이다. 주지 계환 스님은 지도법사들 따라 두지 않고 스님이 직접 교리공부를 가르치며 화소회 운영전반을 세심하게 챙겨준 정도로 청년포교에 열성을 갖고 있다.

이은비 기자

##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참선 지도 ‘담마스쿨’ 개강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이 어린이를 위해 영어로 참선지도와 마음 다스림을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 담마스쿨을 운영한다.

12월 23일 첫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되는 담마스쿨은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 시작 전후 15분씩 참선지도를 병행해 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어린이의 수준에 따라 3개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인원을 각반 8명으로 제한했다.

수업은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수료한 주지 자우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국제포교사가 각 반을 담당한다. 외국인 교사의 특강도 예정돼있다.

자우 스님은 향후 해외에 설립된 한국사찰과 연계해 어린이 영어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담마스쿨에서 공부한 어린이에게 선원에서 인증하는 청소년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어린이포교 인재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02)6012-1731 이은비 기자

## 대한 불교 영화사

(국태민안 호국도량)

조 회	실 주	일선 대	대선사
회 주	주 월	현 스	님
주 지	지 보	원 스	님
총 무	무 등	명 스	님
신 도 회 장	강	종구 거	사
부 회 장	채	성룡 거	사
문화예술부장	유	성철 거	사
화 주	선	법진 보	살

불기 2550(2006)년 음력 10월 15일, 입재일  
불기 2551(2007)년 음력 1월 15일, 해재일

※ 국태민안 발원기도 합니다. 동참바랍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매적산  
**영화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전화 054)931-0044

##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중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중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 **청국장 분말 (우리콩)** 1Kg 20,000원

■ **치료식**

■ **건강식** ★ **청국장 환 (우리콩)** 1Kg 25,000원

■ **발아생식**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영도 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 못하는 이기주의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티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연락처 031)736-3734  
해원사 치세요 031)732-3790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 현대 결혼연구원